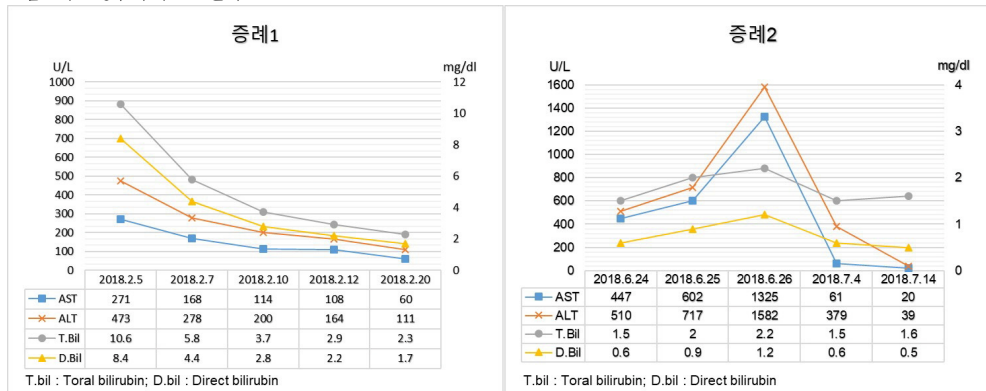


동물의 조직 및 체액을 섭취한 후 발생한 급성 E형 간염 2예

국립경찰병원

*이운섭, 오인수

서론: 급성 E형 간염은 임상적으로 급성 A형 간염과 비슷하며 드물게 간부전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 분변-경구 경로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선진국에서도 인수공통감염의 형태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형 간염의 유행률에 관한 공식적 통계 없이 간헐적으로 학문적 보고만 있어 왔으며, 병원체의 유입경로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본원에서 동물의 조직 및 체액을 섭취한 후 발생한 급성 E형 간염 2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1:** 52세 남자, 결핵성 흉막염, 고지혈증 등의 병력 있는 환자로 내원 5일 전 발생한 황달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음주, 해외 여행, 수혈, 한약 복용 등의 병력은 없었고 증상 발생 수일 전 야생 멧돼지 쓸개즙을 복용하였다. 입원 당시 AST/ALT 271/472 U/L, Total/Direct bilirubin 10.6/8.4 mg/dl, ALP 240 U/L, PT 101.6 % 측정되었고, 복부 CT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후 검사에서 HEV-IgM 양성이었으나 다른 급성간염 원인 검사(HSV, EBV, CMV, HAV, HBV, HCV)는 모두 음성이고 보존적 치료 후 호전 보여 퇴원하였다. **증례 2:** 58세 남자, 알콜성 간염의 병력 있던 환자로 내원 1일 전 발생한 피로감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해외 여행, 수혈, 한약 복용 등의 병력은 없었고 만성 음주력과 증상 발생 수일 전 천엽, 소 등골 등을 복용하였다. 입원 당시 AST/ALT 447/510 U/L, Total/direct bilirubin 1.5/0.6 mg/dl, ALP 235 U/L, PT 105.2 % 측정되었고 복부 CT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후 검사에서 HEV-IgM 양성이었으나 다른 급성간염 원인검사(HSV, EBV, CMV, HAV, HBV, HCV)는 모두 음성이고 보존적 치료 후 호전 보여 퇴원하였다. **결론:** 급성 E형 간염은 분변-경구 경로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의 형태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위생학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원에서 동물의 조직 또는 체액을 섭취한 후 발생한 급성 E형 간염 2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간세포암종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B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용성

¹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과학교실, ²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강릉아산병원 내과학교실

*이지혜¹, 이세환¹, 김홍수¹, 전백경², 김영돈², 천갑진²

목적: 만성 B형 간염이 동반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근치적 치료 후 항바이러스 치료는 환자의 생존 및 무병생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타 국소치료를 받은 환자에서의 효용성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종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면역비활동기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가 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혈청 HBV DNA 2,000 IU/mL 미만인 B형간염 연관 간세포암종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고 6개월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간세포암종 진단 후 치료받은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을 Kaplan-Meier curve 및 log-rank test로 검증하였으며 전체 생존기간과 임상 변수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검증하였다. **결과:** 총 78명을 분석하였으며 간암병기(mIICC)는 50%에서 3기 이상이었다. 항바이러스 치료 시작 당시 HBV DNA 수준은 2.4 log (1.1-3.2) IU/mL이었으며 95%에서 HBeAg 음성이었다. 간세포암종 진단 전후 6개월 이내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40명(51%)이었으며, 이 중 11명은 간세포암종 진단 당시 HBV DNA 20 IU/mL 미만이었다. 항바이러스제의 종류는 34명의 환자에서 엔테카비어 혹은 테노포비어를 투여받았다.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는 전체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P=0.516), 항바이러스 치료 시작 당시 혈청 HBV DNA가 20 IU/mL 이상이었던 51명을 대상으로 하위그룹 분석하였을 때도 항바이러스 치료는 전체 생존과 연관이 없었다 (P=0.298). 다변량분석 결과 전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문맥 중앙혈전 침범 (P<0.001, HR=61:95% CI 8-447)과 종양 크기가 5cm 이상일 때 (P<0.001, HR=7:95% CI 2-21)였다. **결론:** 소규모 후향분석 결과 면역비활동기 만성 B형간염 연관 간세포암종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는 환자의 전체 생존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